

# 광주 첫 여성 구청장·전국 첫 5선 단체장 나오나

## 6·3 지방선거 눈여겨볼 만한 진기록

### 신수정 북구청장 후보 도전·무투표 3선 당선자 주목 박우량 군수 징검다리 5선·노관규 무소속 3선 관심

6·3 지방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수립될 주요 기록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첫 여성 구청장 배출 여부가 관련 포인트로 꼽히고 있고, 전남에서는 5선 기초단체장, 무소속 3선 기초단체장 탄생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수정 북구청장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

서 광주지역 첫 여성 구청장에 도전한다. 신 후보는 다음달 3일 본선에서 진보당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치를 예정이다. 지역 특성상 민주당의 강세가 뚜렷해 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김 후보 역시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고 표밭을 다져온 만큼 치열한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

시 후 여성 기초단체장이 배출된 적이 없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 광주 남구에서는 첫 3선 기초단체장 탄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3선 도전에 나선 김병내 정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4차 단일화 연대를 꺾고 공천장을 받아 든 상태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가 없어 김 정장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등 범야권에서의 참전이 예상됐으나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이 없어 무난하게 3선에 성공할 것으로 지역 정계는 내다보고 있다.

남구는 민선 3~4기 황일봉, 5~6기 최영호 전 청장 등이 재선에 성공한 3선의 벽이 높은 지역이었다. 무투표 당선 사례도 없어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첫 무투표

당선 기록까지 세우게 된다.

전남에서는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우량 후보의 당선 여부가 관심사다.

그는 민선 4·5·7·8기 동안 총 15년을 군수직을 수행, 탄탄한 조직력과 지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국 첫 '5선 단체장' 타이틀 획득에 도전한다.

박 후보는 본선에서 조국혁신당 김태성 후보, 최재순·고길호 무소속 후보와 4파전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징검다리 4선에 도전하는 노관규 순천시장은 '무소속 3선'이라는 도전에 나선다. 노 시장은 민선 4기 민주당 소속으로 시장직을 시작했지만 이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민선 5·8기 순천시장에 올랐다.

민주당은 손준모 변호사를 후보로 공천하고 순전을 탈환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

다. 여기에 진보당 이성수 예비후보도 오랜 시간 지지층을 결집해 오면서 3차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연임을 허락하지 않는 여수시장 선거에는 서영환 민주당 예비후보, 명창환 조국혁신당 예비후보, 무소속 김창주·원용규 예비후보가 나선다.

정기명 현역 시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여수시는 지방자치 이후 시장이 단 한 번도 '연임'에 성공하지 못한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여수시는 민선 1기 김광현 시장을 시작으로 주승용, 김충석, 오현섭, 주철현, 권오봉, 정기명 시장까지 모두 단임에 그쳤다. 유일한 재선인 김충석 시장도 민선 3·5기에 당선돼 연임은 하지 못했다.

목포에서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무

소속으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국회의원 출신이 기초의원 선거에 나서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출마 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서울 마포를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이후 목포 원도심의 부동선을 투기 목적으로 차명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탈당했다.

손 전 의원은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7년 전부터 목포로 이사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지만 인물을 보는 유권자들이 많고 있다"며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과거보다는 보다 치열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6·3 지방선거 브리핑

### 장세일, 영광상권 회복·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 "실질적 지원 검토"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사진)는 최근 영광군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에서 지역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신종희 영광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해 지역상권의 현실과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과 지역 내 소비가 실제 상권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상권활성화지원센터 건립, 온누리상품권 사용 지역 확대, 떡 산업 매출비 지원 방안 마련, 반값 여행 상품 예산 확대 등이 나왔다.

장 후보는 이들 건의사항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 보고,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 공약과 실천 과제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은 개별 업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골목상권과 관광, 농산물 소비, 지역 화폐가 함께 맞물리는 지역경제 선순환 과제로 접근한다는 구상이다.

장세일 후보는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크고,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더 두렵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주신 의견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제104회 어린이날인 5일, 전남광주지역 아동 권리 전문 NGO들로부터 현안과 정책을 제안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민형배 "아동정책, 시민이 설계하도록 하겠다"

### 어린이날 NGO 간담회...통합 대응체계 필요성 제기 출생 미등록·외국인 아동...보편적 권리 보장 과제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정책의 결정 구조를 행정 중심에서 시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놴다.

민 후보는 5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아동 정책의 주체는 관료가 아니라 아동과 시민"이라며 "시민이 정책을 구상하고 설계하면 행정이 이를 책임 있게 실행하는 구조로 바뀌

다"고 밝혔다. 아동 분야에도 '시민주권 정부' 원리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서부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중심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굿네이버스는 위기 아동과 범죄 피해 가정 지원을 위한 광역 단위 보호체계와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민간 재원 의존 구조의 한계를

짚으며 범죄 피해 아동과 가족의 회복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적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는 체계를 목표로 5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확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외국인 아동 취약 통지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구조 개편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민 후보는 제안에 대해 "공무원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시민이 의사결정과 집행, 평가까지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

다"며 "아동정책 역시 시민주권 방식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이 투표권이 없어 정책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권리는 투표권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아동 권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현장에서 제시된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통합특별시장 출범 이후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며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기본소득당, '노키즈존 제로' 공약 발표

### 민간 '에스키즈존' 지원...아동친화사회 전환

기본소득당이 6·3 지방선거 맞춤 공약 3호로 '2030 노키즈존 제로'를 내놴다.

기본소득당 옹혜인 중앙선대위원장과 신지혜 광주 광산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박은영 전남광주특별시장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이야말로 노키즈존을 폐지하고, 아동친화사회로 나아가 적기다"고 밝혔다.

이들은 "3년 전 노키즈존 폐지를 제안하며 전국 각지에서 '에스키즈존'이 활성화되고 노키즈존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등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다"며 "이제는 아동친화 사회 실현을 해야 하는 시기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를 위해 '2030 노키즈존 제로'를 제안했다. 해당 공약은 대학생 및 노동 맞춤형에 이어 세 번째로 소개

된 이번 아동·양육자 맞춤형공약은 노키즈존 폐지와 아동친화사회 실현을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이들은 노키즈존 철폐를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담은 '노키즈존 제로 조례' 제정 △공공시설 노키즈존 전면 금지 △민간 사업장 에스키즈존 전환 지원부터 시작할 구상이다.

옹혜인 중앙선대위원장은 "노키즈존 폐지는 아동행복지수 OECD 최하위 대한민국을 바꾸는 출발점인 동시에 '노시니 어준', '노중년존'의 등장처럼 우리 사회에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첫 번째 방파제"라며 "기본소득당의 후보들이 의회에 진출해 '2030 노키즈존 제로'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아이가 어디서나 즐겁게 놀 수 있는 미래를 열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강은미, 산재 예방 '노동특별시' 구상 제시

### 건설노동자 적정임금·휴업수당 도입 등 5대 공약 약속

정의당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사진)가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특별시' 구상을 제시했다.

강은미 후보는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민 고용 확대와 적정임금 보장, 안전한 건설현장을 통해 책임 있는 노동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광주 건설업 종사자는 17만 여명으로 지역 전체 고용의 11%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군"이라며 "하지만 산업 재해율과 다단계 하도급, 불안정한 노동 환경 등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노동 분야 5대 공약을 내놴다.

공공 발주 현장 지역노동자 우대 및 정규 고용 평가제 도입, 전남광주형 적정임



금제 도입,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수기 및 약천후 휴업수당, 지역 건설기술 학교 개설,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혁 및 현장 안전 혁신 입학 핵심 기준화 등이다.

강은미 후보는 "이제는 위험하고 불안한 건설현장을 안정적으로 일하고 안전하게 퇴근하는 현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공공건설부터 전면 혁신해 건설노동 정책을 단순한 생계 재해율과 다단계 하도급, 불안정한 노동 환경 등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시민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보편적 삶이 보장되는 노동특별시를 만들어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 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최영열 "민주당 후보 관권선거 정황 포착"

### 공공시설 부정 사용 지적...사법리스크 우려도

조국혁신당 최영열 영암군수 후보(사진)는 5일 "더불어민주당 우승회 후보 측의 조직적인 사전 선거운동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최영열 후보는 이날 영암읍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암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임에도 우승회 후보 측이 읍·면 협의회장 명의로 지지자 및 사회단체장을 동원해 불법 간담회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공공시설의 정치적 이용과 관권선거 등이다.

특히 최 후보는 지난달 25일 삼호읍 대불문화복지센터의 행사를 공공시설 부정 사용의 구체적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당초 다문화가족 관련 행사로 예정됐던 공공시설에서 우승회 후보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며 "공공시설에서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이뤄진 것은 공공시설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꼬집었다.

또 최 후보는 도의원, 기초의원 후보 및 당원, 각 지역 사회단체장들이 간담회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을 포착, '관권선거'로 규정했다.

최영열 후보는 "영암의 멈춤 4년이 반복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라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이 사법 리스크 연장 여부를 현명하게 심판해 주길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국힘 광주시장, 6·3 지선 후보 공천 완료

### 이정현 통합시장 후보 등 7명...선대위 가동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광주지역 후보 공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다.

국민의힘 광주시장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로 이정현 전 국회의원,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로 안태욱 전 광주시장위원장을 확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원 후보로는 양혜령 전 시의원(북구 제1선거구), 비례대표 후보로는 이오숙 전남도당 여성위원장, 김순옥 광주시장 대변인, 재명

희 호남대안포럼 상임대표를 공천했다. 광산구 다선거구 기초의원 후보로는 임법섭 광주시장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을 내세웠다.

광주시당은 본격적으로 선거대책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홍우석 국민의힘 광주시장위원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안 정당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